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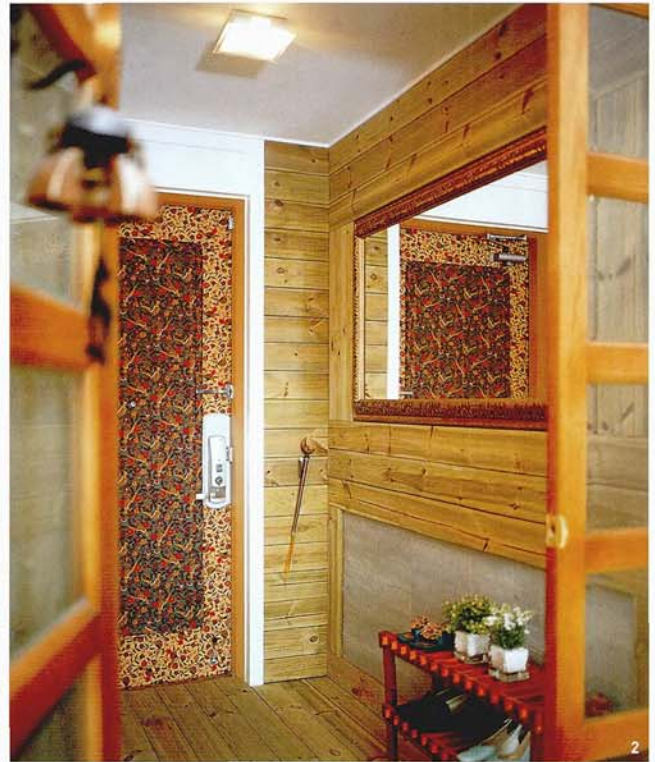
아파트 인테리어의 새로운 제안

봄내음 가득한 잠실에서 온 편지

아파트는 고정된 구조와 획일적인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인식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공간을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곳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아파트에도 새로운 모양이 생겼고, 전원주택의 한가로움까지 물어나기 시작했다. 아파트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한 박연록 씨의 스위트 홈으로의 초대.

에디터 권희란 사진 양진욱





1 2층의 방과 방을 연결하는 복도. 켈트 작업이나 그 외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는 박연록 씨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러너가 돋보인다. 방과 거실의 연결 고리가 되는 공간. 2 아파트의 현관은 차가운 금속 느낌이 나기 때문에 손수 만든 간이 벽을 덧대어 포근함을 살렸다.

잠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유달리 뛰는 집이 있다. 켈트 강의도 하고 잡지에 여러 번 작품이 실리기도 한 박연록 씨의 보금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이곳에 이사온 지 6개월 정도 된 박연록 씨의 집안은 깔끔하고 잘 정돈된 분위기다. 워낙 살림 솜씨가 뛰어난 그녀의 손재주와 줌 인테리어의 시공 덕분에 아파트 내부가 마치 전원주택의 인테리어처럼 따뜻하고 개성 있게 연출되었다. 박연록 씨는 직접 켈트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켈트 교실도 열고 있는 열혈 주부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리본과 꽃, 작은 소품들로 단장해놓고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는 게 취미이자 특기다. 공예를 전공한 그녀의 독특하고 탁월한 미적 감각으로 꾸며진 집의 인테리어는 근처 아파트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복층 구조를 활용하라 박연록 씨의 집은 복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집집마다 복층을 가진 아파트 세대라 다들 장식하고 연출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 그녀는 특히 아파트 분위기의 차가운 금속성 느낌이 싫어 될 수 있으면 온기가 흐르는 인테리어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현관문에 켈트 조각을 덧댄 천을

붙여 이색적인 느낌을 연출한다든지, 현관 앞을 지저분한 곳이 아닌 하나의 장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 바닥을 깔고 천을 이용해 만든 벽을 붙였다.

“아파트는 너무 획일적이고 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 점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구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색다른 벽을 만든다든지, 꽃이나 천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어 그 부분을 가리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일단 현관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집의 인상을 결정하는 곳이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꾸며볼까 해요.”

이렇게 바지런을 떠는 집주인이다 보니 집안 전체가 활기를 머금듯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모던하거나 너무 감각적이어서 뛰는 스타일은 즐기지 않는 편이라 경매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앤틱 가구들이나 여행 다닐 때마다 수집한 각국의 봉제 인형이나 소품을 공간에 알맞게 배치했다. 특히 그녀가 집안 인테리어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거실. 집안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이자 사람들을 초대해 차 등을 마시는 곳이라 가구 선택이 배치에 온갖 신경을 집중했다고. 1층 거실에는 기본적인 소파와 테이블을 두었고, 한쪽 벽은 앤틱 가구를





2



3



4

1 유럽형 주택의 정통 주방이 연상되는 인테리어. 조리하는 공간은 안쪽에 있고 다이닝룸은 개방되어 공간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구성된 예라 할 수 있다. 2 1층의 거실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느낌이다. 곳곳에 놓인 앤티크한 소품은 경매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것이다. 3 2층에 있는 홈 바(Home-Bar). 자칫 1층의 거실 구조와 유사해질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해 독특한 공간으로 연출했다. 4 복층 구조의 아파트라 천장에 큰 상들리에를 달고 벽 전체를 화이트톤으로 마감했다.

배치했다. 자칫 가구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 가구 수를 간소화시켜 기본적인 것만 들여놓았다.

53평형인 박연록 씨의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본다면 14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집이다. 게다가 그녀가 여기저기 꾸며놓은 훌륭한 인테리어 작품들 때문에 그 이상을 웃돌지 않을까 한다. 무엇이든 모으는 것을 좋아해 1층의 다이닝 룸 장식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양주와 자기 인형들을 진열해놓았고, 1층과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는 장식장에는 세계 각국의 앤티크 찻잔 세트가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또 2층으로 올라가 홈 바를 보면 많은 종류의 글라스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 난간을 동그란 원형으로 만들어 부드럽고 완만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복층이 주는 넓어 보이면서도 웅장해 보이는 매력을 최대한 고조시키면서 자신의 퀘트 작품을 벽에 걸어놓아 특색을 주려고 했단다.

“꽃을 워낙 좋아해서 이곳저곳에 플라워 장식품을 놓아두었죠. 생활은 오래가지 않아 조화와 적절히 섞어 방과 화장실, 거실과 주방에 항상 장식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플로리스트가 아니어서 집안을 꾸미

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집안 일들이 재미있을 뿐이에요.”

박연록 씨의 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집'이다. 화장실과 다이닝 룸은 유럽풍 스타일로 꾸몄고, 방과 거실은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꾸몄다. 주택이라는 게 트렌드만 좇다 보면 금세 질리는 특성이 있어 너무 튀지 않는 소재를 선택해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자칫 자신의 퀘트 작품으로 집안을 도배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 파스텔톤의 컬러와 조화롭게 배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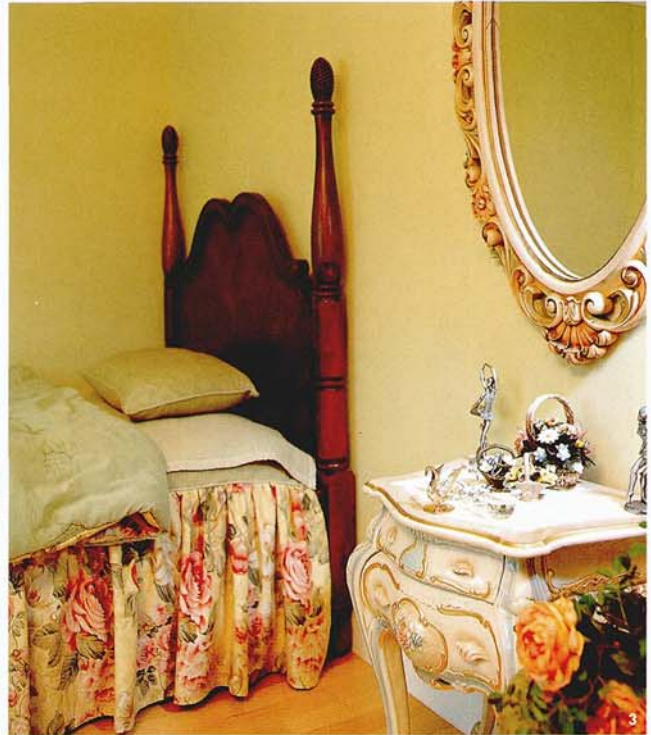
특히 음악을 하는 큰아들 방은 너무 여성스럽지 않도록 벽지와 침대 시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장식적인 것을 피했다. 다행히 두 아들들 모두 박연록 씨가 손수 만든 침대 커버라든지 커튼 등을 좋아해 어릴 적부터 아들 방은 직접 꾸며줬다고, 자신의 스타일을 잘 따라와주는 가족이 고마울 뿐이란단다.

생각을 바꾸면 아이디어가 보인다 박연록 씨는 원래 아파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일반 주택이 인테리어를 하기





2



3

1 부부 침실의 창가를 꾸미는 달콤한 티 테이블.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는 날이면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그만이라고. 2 2층에 있는 부부 침실. 불필요한 소품은 자제하고 넓고 깔끔해 보이도록 가구를 배치했다. 3 1층에 있는 아들 방. 다소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가구와 소품들로 꾸몄지만 오히려 아들이 이런 인테리어를 선호한다고.

에도 편하고 제약도 없으며 무엇보다 정원이 있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을 받는데, 아파트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 회색의 벽, 삭막한 스틸 느낌의 문과 획일적인 모양의 집안 구조들이 자유로운 인테리어를 하는 데 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사실. 따라서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잘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오히려 회색과 금속성의 빛깔이 가득한 아파트 내부를 보니 독창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더 불타올랐단다.

“성향 자체가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걸 싫어해요. 그렇다고 무난한 걸 피한다는 건 아니구요. 처음에 이곳으로 이사왔을 때 느꼈던 감정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흰색 캔버스 위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벽 자체의 색깔을 방마다 달리 테마를 두어 색칠하고 거실과 주방은 베이지와 화이트를 섞어 발랐죠. 집안은 일단 넓어 보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침실이나 거실은 신경 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화장실 꾸미기 같아요.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거나 습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싫어서 방처럼 꾸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지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일념으로 바닥에 거친 타일을 깔고 벽은 천을 덧대어 방 같은 분위기로 연출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같은 인테리어는 꼭 박연록 씨처럼 집안 살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재주가 없어도 가능하다. 화장실, 거실, 주방, 방 등 모든 공간마다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공간을 더욱 넓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박연록 씨 집은 화장실이 그런 예. 내부 전체를 방처럼 꾸몄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튀기거나 지저분하게 쓸 수 없는 마음가짐이 든다고. 그래서인지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리된 느낌이다. 6개월 살다 보니 오히려 익숙해졌다고. 물론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낯선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집을 찾는 손님들도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라며 감탄한다.

앞으로 6개월이 또 지나면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라며 박연록 씨는 마치 작품을 만드는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처럼 집안 곳곳의 부족한 점을 체크한다. 아파트라는 제한된 구조를 자신만의 분위기와 색깔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탄생시킨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집에서는 여유로운 한낮의 티타임이 가능할 것 같다. ☺